



# 漢江은 소생될 것인가?

洪 淳 佑

(本協會報編輯委員)  
(서울大 微生物學科 教授)

대·소규모의 생산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廢水로 인해 한강 본류마저 기능을 점차 상실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는 환경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국민을 계몽하고 선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산업사회가 낳는 비극을 막는 길이다.

漢江은 수목이 울창한 太白山脈의 여러 골짜기에서 發源하여 南·北漢江의 수계를 이루며, 팔당에서 어우러지면서 漢江本流를 이루어 유역인구 1,500만명의 젖줄 구실을 하는 동시에 농업용수로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등 천연부존자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근간에 이르러서는 서울을 위시한 衛星都市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하수와 大·小規模의 생산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廢水로 인하여 서울시역의 각 지천이 급격한 오염현상을 나타내면서 한강본류마저 안타깝게도 그 본연의 기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으며, 곳에 따라서는 더욱 심한 오염현상이 생겨 마침내 물의 경제적 가치 즉 資源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염현상을 걱정한 나머지 매스컴에서는 “漢江이 죽었다” 또는 “漢江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경종을 울린 바 있으며 많은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벌써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漢江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행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中良川의 경우처럼 지천정화운동을 서두르는 한편 탄천, 안양천 종말폐수처리 시설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한 환경용역전문회사인 엔지니어링사 이언스(ES)社가 조사한 漢江流域環境保全綜合報告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안양천 합류지점에서 하류까지 27km의 강은 이미 죽었다고 판정하고 있으며, 이 상태로 汚染이 加重되는 경우에는 제 1한강교에서 하류 43km에 이르는 한강물이 자연하천으로서의 自淨能力을 상실한 허울만 흘러가는 강이 될 것이라고 科學的 分析結果에서 얻어진 진단을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충분한 對策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강물은 점차 상류까지 오염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팔당상류의 청평호나 의암호도 1982년 基準 수년내에 수질오염을 指標하는 富榮養化(Eutrophication) 현

상이 극심하여 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漢江을 본래의 한강물로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해마다 3,000억원씩 다가오는 2000년대까지 총 4조 8천여 억원이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 漢江은 그 옛날 어디에서나 송어회를 먹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물로 소생할 수 있을지? 또 한강 백사장에서 즐기던 수영도 할 수 있을런지? 나아가서 西水庫, 東水庫의 마을 이름이 아직 남아 있듯이 겨울철에 採氷하여 이 곳 지하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한 여름에 필요한 얼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오게 되는지 등등의 기대를 걸어보아도 되는 것인가?

현재와 같이 모든 국민이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는 매우 否定的이며 막대한 경비의 浪費만을 초래하게 될 것같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舉國的인 일은 국가와 국민이 협동적으로 추진할 때에만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 우선 국가는 環境保全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소규모의 産業體, 농장, 논, 밭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까지 모든 것을 법으로만 규제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오염물질을 처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하여 環境保全이 되도록 국민을 啓蒙하고 善導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뒤 떨어져 있는 基礎科學의 육성을 통하여 우량 균주의 개발, 처리 System의 개량 등 국가 주도하에 여러 分野의 전문가들의 綜合的인 研究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處理方法의 개발 및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경우에는 눈앞의 이익 혹은 개인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과 범국민적인 공익의 관점에서 나 한사람은 패찮겠지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며, 무분별하게 생활하구나 가축의 배설물등을 버리면 公共用水를 汚染시켜 漢江의 수질이 惡化되고 이는 곧 漢江의 生態系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漢江이 소생할 것이며 우리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줄 것이다.

生態系란 생물적인 요인과 무생물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체계(System)이다. 생태계는 주위의 변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자체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완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계의 완충능력의 限界를 넘어서는 변화는 生態系의 황폐화를 초래하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時間과 經費가 소요되며, 人間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올림픽을 위시하여 각종 국제행사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이 좁은 강유역에 3,000여만의 인구가 形成되었을 때에도 옛날과 같이 맑은 한강물을 즐기며 發展하는 産業社會에서 充分한 水質源을 活用할 수 있기 위해서는 漢江을 되살리기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生態系를 保全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環境問題에 있어서는 국민 개개인이 “사람은 수질보호, 수질은 사람보호”라는 포어를 생각해볼 수 있듯이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는 정신에서 수질을 더 보호하고 나아가서 生態系를 보호해줄 때에만 자연의 혜택을 우리가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을 認識하여 水質保護 즉 環境汚染을 最小化하고자 하는 의식의 體質化만이 문제해결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이다.

\*

☆ 믿는 마음 지킨 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